

## 청소년들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 밀양시를 중심으로 -

류 호 경\*

· 밀양산업대학교 식품과학과

### A Survey of Adolescents' Concern and Perception about Body Image - At Miryang City -

Ho Kyung Ryu

Department of Food Science, Miryang National University, Kyungnam,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dolescents' body size and their concerns and perceptions about body image. Group means of heights and weights were 171.5cm and 60.3kg for boys and 159.3cm and 52.3kg for girls. Body Mass Index(BMI) of the subjects were 20.5 for boys and 20.6 for girls. Only 11.5% of subjects were overweight or obese, however 42.5% of subjects had experienced weight control, and the main reason for weight control was to lose weight(80.6%). In concern for body image and frequency of eating disturbance : females had more concern than males, the group who had attempted weight control had more concern than those who had not, and the group who were overweight had more concern than those who were under- and normal weight. In perception about body image, using a set of nine figure drawings arranged from very thin to very heavy figures, subjects rated their current figure, considered figure(how they appeared to others), ideal figure, and attractive figure. For boys, the current, ideal, and most attractive figures were almost identical, but for girls, the ideal figure was significantly thinner than current figure and attractive figure was significantly thinner than current figure.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thinner figure as ideal and attractive figure, the higher the concern for body image and frequency of eating disturbance. Thus it seems that a distorted perception of ideal body size affects adolescents' concern for 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2(2) : 197~205, 1997)

**KEY WORDS** : adolescents · BMI · body image · ideal figure.

---

#### 서 론

---

비만이 각종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이 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발생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러 실태조사 보고들(강영림 · 백희영 1988 ; 고경숙 · 성낙용 1974 ; 문형남 등 1992 ; 박갑선 · 최영선 1990 ; 이인열 · 이일하 1986 ; 이종호 1990 ; 이주연 · 이일하 1986 ; 최인선 등 1995 ; 하명주 1985)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환율이 7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른

---

\*교신저자 : 류호경, 627-130 경남 밀양시 내이동 1025-1  
전화) 0527) 50-5355, 팩스) 0527) 355-3186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찌는데 대한 공포를 가지고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소위 다이어트 산업이 부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하여 서서히 적정수준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에 대한 영양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이 적정수준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정상 내지는 저체중인 사람들이 지나친 체중감소를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르면 마를수록 더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여러가지 섭식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미 거식증 환자들의 치료 모임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식행동이나 체중조절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따라서 최근 비만과 관련된 연구의 한 영역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는 체형의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Bell등 1986; Brone, Fisher 1988; Desmond등 1989; Fallon, Rozin 1985; Feldman등 1988; Hunemann등 1986; Wilson등 1994). 선행연구(Furnham, Alibhai 1983)에 의하면 바람직한 체형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인종간(Kemper등 1994)·세대간(Rozin 1988)·성별간(Rozin 1988)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여러 종족들간에 적절한 체중에 대한 인식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체중을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Dowson 1989). 특히 사춘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의 시기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체형의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그 이후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온 체위나 체형, 비만과 관련된 영양교육은 자신의 신장에 대한 이상적인 체중을 제시하고 그것을 목표로 체중조절을 하여야 한다는

매우 피상적인 지도에 불과하였다. 즉 지도 대상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체형은 어떤 것인지, 체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체중조절을 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영양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형을 조사하고, 그들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조사는 1996년 5월 중에 밀양 시내에 소재하는 5개 고등학교 2학년 각 한 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남학생 91명, 여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의 입회하에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답하게 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고 즉시 회수하였으므로 응답률과 회수율은 100%이었다. 분석은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 5부를 제외한 221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 상황 및 체위 조사, 체형에 대한 관심 및 체중조절 태도, 섭식 장애와 관련된 증상의 빈도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매우 마른 체형으로부터 매우 뚱뚱한 체형까지 9개로 구성된 체형의 그림을 보여주고, 몇가지 질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체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체형의 그림은 공업진흥청에서 발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1992)의 한국인 평균 체위를 기준으로하여 기본체형을 만들고, Stunkard 등(1981)의 그림을 참고하여 개발한 것이다. 그림은 Fig. 1과 같다.

조사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상황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6.7세(SD=0.50)이었다. 이들의 가정 및 생활 환경 실태는 Table 1과 같다.

### 2. 조사 대상자의 체위

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남·녀 각각 평균 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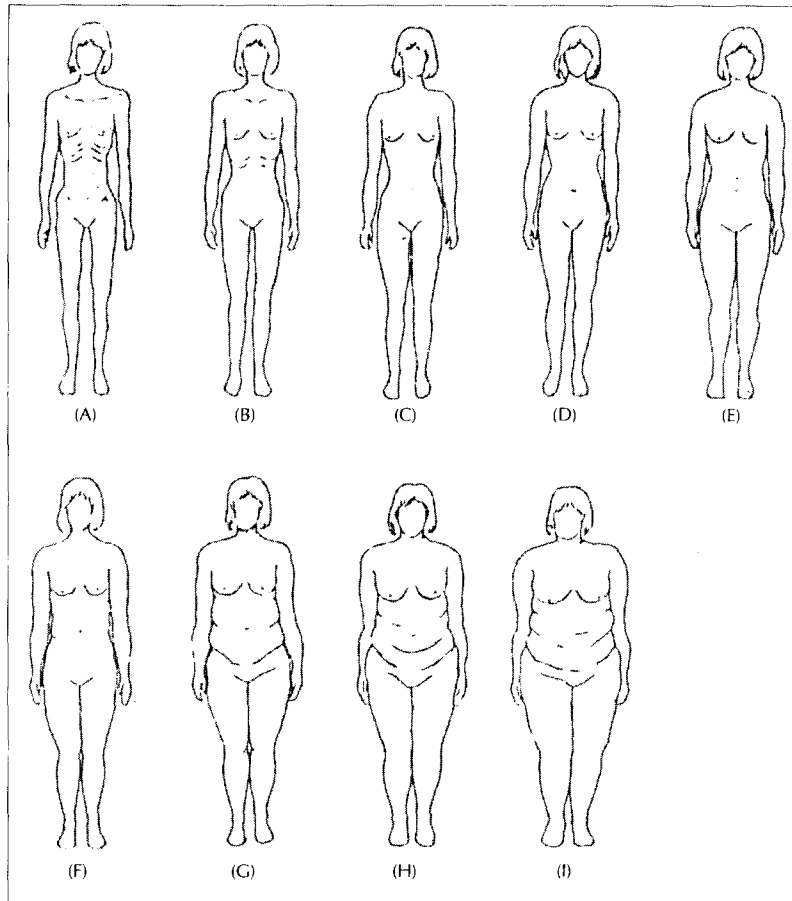


Fig. 1. Figure drawings.

						N(%)	
Parents' age(yrs)	≤ 40	41 - 45	46 - 50	51 - 55	≥ 56	Total	
Father	6( 3.0)	52(25.9)	88(43.8)	39(19.4)	16(8.0)	201(100.0)	
Mother	31(14.1)	115(52.3)	59(26.8)	11( 5.0)	4(1.8)	220(100.0)	
Parents' occupation	Professional	Administrative	Sales	Farmer	Laborer		
Father	31(14.8)	17(8.1)	18(8.6)	104(49.5)	12(5.7)		
Mother	5( 2.3)	1(0.5)	15(6.8)	79(35.9)	12(5.5)		
	Service	Housewife	Unemployed	Total			
Father	25(11.9)		3(1.4)	210(100.0)			
Mother	21( 9.5)	87(39.5)		220(100.0)			
Parents' educational level(completion)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above	Total	
Father	0(0.0)	50(23.9)	63(30.1)	76(36.4)	20(9.6)	209(100.0)	
Mother	5(2.3)	70(31.8)	92(41.8)	49(22.3)	4(1.8)	220(100.0)	
Family monthly income(10,000 won)	≤ 50	51 - 100	100 - 200	201 - 300	301 - 500	≥ 501	Total
	10(4.7)	44(20.8)	112(52.8)	34(16.0)	3(1.4)	9(4.2)	212(100.0)
Subject's living arrangement	Family home	Domitory	Private room	Lodging	Relative's home	Total	
	189(85.5)	10(4.5)	10(4.5)	6(2.7)	6(2.7)	221(100.0)	

**Table 2.** Height, weight and BMI for subjects

	(Mean±S.D.)		
	Height(cm)	Weight(kg)	BMI
Male	171.5±5.3	60.3±8.3	20.5±2.3
Female	159.3±5.4	52.3±6.5	20.6±2.4
Mean	164.3±8.0	55.5±8.3	20.6±2.4

**Table 3.** Time of heightened sensitivity of body image

BMI	Male	Female	Total	Mean± S.D.
≤19	26( 28.6)	30( 23.1)	56( 25.3)	17.9±0.9
19< ≤24	59( 64.8)	89( 68.5)	148( 67.0)	20.9±1.3
24< ≤27	3( 3.3)	9( 6.9)	12( 9.2)	24.9±0.7
27<	3( 3.3)	2( 1.5)	5( 2.3)	28.4±0.8
Total	91(100.0)	130(100.0)	221(100.0)	20.6±2.4

cm, 60.3kg과 159.3cm, 52.3kg이었고, BMI의 평균은 남·녀 각각 20.5와 20.6이었다(Table 2). 이들의 BMI 값을 일정 범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 Table 3에 나타나 있다. BMI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체조성의 지표이나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률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들(Brown 1995 ; Hamilton등 1991 ; Smolin, Grosvenor 1994 ; Wardlaw등 1994 ; Whitney, Rolfes 1993)을 참고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체중(25.3%)이거나 정상체중(67.0%)이었고, 과체중은 9.2%, 비만은 2.3%에 불과하였다. 이는 비만도 측정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 15~17세 남자 비만아 14.99%, 여자 비만아 18.17%(문형

**Table 5.** Affecting factor for body size norm establishment

	N(%)					
	Parents	Siblings	Friends	Mass com.	Other	Total
Male	6(6.6)	4(4.4)	48(52.8)	31(34.1)	2(2.2)	91( 41.2)
Female	3(2.3)	9(6.9)	67(51.5)	50(38.5)	1(0.8)	130( 58.8)
Total	9(4.1)	13(5.9)	115(52.0)	81(36.8)	3(1.4)	221(100.0)

**Table 6.**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N(%)		
	Male	Female	Total
Have attempted	21( 23.1)	73( 56.2)	94( 42.5)
Have not attempted	70( 76.9)	57( 43.8)	127( 57.5)
Total	91(100.0)	130(100.0)	221(100.0)

**Table 7.** Reason for weight control

	N(%)				
	To lose weight	To gain weight	To maintain weight	For specific purpose	Total
Male	8(38.1)	9(42.9)	3(14.3)	1(4.8)	21( 23.1)
Female	68(93.2)	2( 2.7)	2( 2.7)	1(1.4)	70( 76.9)
Total	76(80.6)	11(11.7)	5( 5.3)	2(2.1)	91(100.0)

**Table 4.** Distribution of BMI of subjects

	N(%)
Elementary school	11( 5.0)
Middle school	35( 15.8)
High school	164( 74.2)
Other	11( 5.0)
Total	221(100.0)

남 등 1992)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이다. 이는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대도시와 변화가 덜한 농촌 근교의 중소도시 간에 비만 이환율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체형에 관한 관심과 식행동

체형에 관한 관심을 측정한 질문에서 체형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시기는 현재, 즉 고등학교 시절로 전체 응답자의 74.2%를 차지하였고(Table 4), 체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친구들과 매스컴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체중조절의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42.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56.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이유는 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함인 것(Table 7)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들의 체위가 앞의 BMI에 의한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정상 내지는 저체중이었음을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체중조절을 했거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MI의 평균을 체중

조절의 이유별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한 조절군에 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한 조절군의 BMI값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한 조절군의 경우 BMI값이 21.7로 정상체중의 범위에 있음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이는 사춘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torz · Greene(1983)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즉 62%가 평균체중이하인 대상자들 중 83%가 체중감소를 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로 사춘기의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은 정상보다도 더 마른 체형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와 관련된 증상의 빈도에 있어서는 각각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Table 9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체형에 대한 관심도 유의적으로 높고, 섭식장애와 관련된 행동의 빈도도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체형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섭식장애 관련 증상, 즉 똥똥해지는데 대한 지나친 걱정과 체지방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으로 억제할 수 없이 마구 먹거나 음식을 먹고난 후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토하는 등의 행동의 빈도와는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4).

체중 조절의 경험 유무와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 나타나 있다. 먼저 BMI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중 조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의적으로 BMI값이 높았고,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와 관련된 증상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를 기준으로 분류한 군간에 체형에 대한 관심, 섭식 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체형에 대한 관심은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섭식장애와 관련된 증상의 빈도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만군에 속한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어(Table 3)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만군에 속한 학생들이 과체중군의 학생들보다 오히려 체형에 대한 관심도 적고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너그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곧 체형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수는 없다.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체형이 매우 변화된 사람은 1.5%에 불과하였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52.3%나 되었다. 그러

**Table 8.** BMI by reason of weight control (Mean±S.D.)

	To lose weight	To gain weight	To maintain weight	Tor specific purpose
BMI	21.7±2.4	18.3±1.8	20.7±1.2	25.1±0.3

F=8.02, Pr>F=0.0001

**Table 9.** Concern for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by sex (Mean±S.D.)

	Male	Female	P>   T
Concern for body image	2.8±1.6	4.0±1.8	0.0001
Eating disturbance	1.3±1.4	3.0±1.8	0.0001

**Table 10.** Correlations of the weight control experience with variables (Mean±S.D.)

	BMI	Concern for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Have attempted	21.3±2.6	4.1±1.7	3.1±1.8
Have not attempted	20.0±2.0	3.0±1.8	1.7±1.6
P>   T	0.0001	0.0001	0.0001

**Table 11.** Concern and perception about body image by BMI (Mean±S.D.)

BMI	Concern for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Self perception of body image
≤19	3.2±1.7	1.4±1.5	4.0±1.1
19< ≤24	3.5±1.9	2.5±1.8	6.1±1.7
24< ≤27	4.3±1.4	4.1±1.6	8.4±0.9
27<	3.2±1.8	3.2±1.5	8.2±0.4
F	1.22	10.54	43.42
Pr>F	0.3039	0.0001	0.0001

나 변화가 많은 군일수록 체형에 관한 관심도 많았고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도 높은 경향(Table 13)이었으며, 변화정도와 좋지 않은 식행동의 빈도와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4.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에 대한 인식의 측정은 figure drawings를 보여 주고 각각의 질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여 분석하였다. 즉 Fig. 1에 나타나 있는 figure drawings의 가장 마른 체형인(A)로부터 가장 뚱뚱한 체형인(I)까지에 1점부터 9점까지의 값을 부여하여 환산된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5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그림과 남들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길 그림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그 값이 유사하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현재의 체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의 경우 3.86, 여학생의 경우 3.09로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마른형을

선택함으로써 남녀간에 매우 큰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현재 체형에 대해 훨씬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의 연구들(Fallon, Rozin 1985 ; Klesges 1983 ; Thompson, Psaltis 1988 ; Thompson, Thompson 1986)과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여학생들에서 남자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된 체형은 실제 남학생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체형보다 더 마른 체형이었는데 이도 선행 연구(Fallon, Rozin 1985 ; Thompson, Psaltis 1988 ; Thompson, Thompson 1986)와 일치한 결과이다. BMI 군별로 체형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15에 나타나있다. 현재의 체형은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자신의 체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함을 보여주었고, 이상적 체형과 매력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조절의 경험과 체형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체중 조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재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체형은 그렇지 않

**Table 12.** Degree of body change with concern for body image N(%)

	Great change	Some change	No change	Total
Male	1(1.3)	30(47.7)	44(58.7)	75( 38.1)
Female	2(1.6)	61(50.0)	59(48.4)	122( 61.9)
Total	3(1.5)	91(46.2)	103(52.3)	197(100.0)

**Table 13.** Concern for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with degree of body change

	Great change			Some change			No change			F	Pr>F
	Male	Female	Mean	Male	Female	Mean	Male	Female	Mean		
Concern for body image	0.0	6.5	4.3	3.2	4.1	3.8	2.8	4.1	3.5	0.75	0.4749
Eating disturbance	0.0	4.0	2.7	1.9	3.5	3.0	1.1	3.5	1.9	9.83	0.0001

**Table 14.** Correlation of degree of body change with other variables

	Change degreecon	Cern for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Degree of change	1.00		
Concern for body image	0.09	1.00	
Eating disturbance	0.28**	0.36**	1.00

\*\*p<0.001

**Table 15.** Perceptions of body-figure ratings by sex (Mean ± S.D.)

	Male	Female	Pr>   T
Current figure <sup>a)</sup>	4.10 ± 1.44	4.32 ± 1.43	0.2711
Considered figure <sup>b)</sup>	4.02 ± 1.43	4.14 ± 1.48	0.5514
Ideal figure <sup>c)</sup>	3.86 ± 0.74	3.09 ± 0.73	0.0001
Attractive figure <sup>d)</sup>	3.78 ± 0.80	3.02 ± 0.73	0.0001

a) self perceived current figure  
c) self perceived ideal figure

b) other's perception of my current figure  
d) self perceived attractive figure about and for oppo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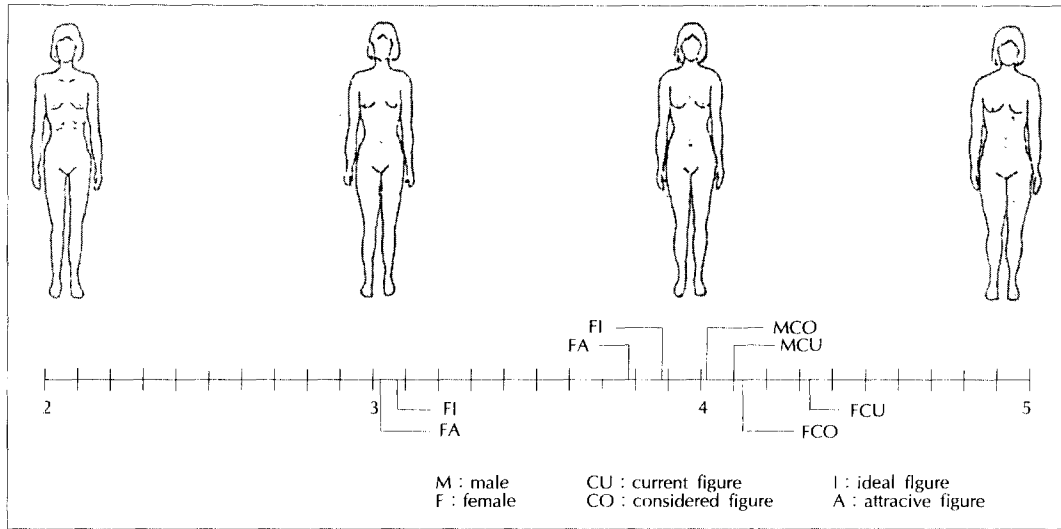


Fig. 2. Perception of body-figure ratings.

은 사람에 비해 더 뚱뚱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이상적인 체형과 매력적인 체형으로는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오히려 더 마른 체형을 선택하여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그들의 부적절한 식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Moses 등 1989). Table 18을 보면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할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 $p < .05$ )과 섭식 장애 관련 행동( $p < .01$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적인 체형과 매력적인 체형으로 더 마른 형을 선호할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 관련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체형에 대한 인식들간에는 매우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 근교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체위를 조사하고 그들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6.7세였고,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녀 각각 171.5cm, 60.3kg과 159.3cm, 52.3kg이었다. BMI의 평균은 남녀 각각 20.5와 20.6이었고 과체중과 비만은 각각 전체의 9.2%와 2.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대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어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의 경험은 42.5%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80.6%가 체중을 줄이기 위함

Table 16. Perceptions of body-figure ratings with BMI

BMI	Current figure	Considered figure	Ideal figure	Attractive figure
≤19	2.77±0.87	2.70±0.93	3.36±0.77	3.36±0.80
19< ≤24	4.51±1.10	4.28±1.24	3.34±0.82	3.26±0.89
24< ≤27	6.42±0.67	6.42±0.67	3.83±1.11	3.58±0.67
27<	7.00±0.71	6.80±0.45	4.00±1.58	3.80±1.48
F	76.62	55.80	2.13	1.11
Pr	0.0001	0.0001	0.0978	0.3469

Table 17. Compare of body-figure ratings with the weight control experience

	Have attempted	Have not attempted	Pr>  T
Current figure	4.66±1.46	3.91±1.33	0.0001
Considered figure	4.45±1.55	3.83±1.33	0.0020
Ideal figure	3.29±0.86	3.49±0.79	0.0723
Attractive figure	3.28±0.81	3.37±0.87	0.3990

**Table 18.** Relationships among body-figure ratings and other measures

	BMI	Concern for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Current figure	Considered figure	Ideal figure	Attractive figure
BMI	1.00	0.12	0.42**	0.80**	0.79**	0.19	0.13*
Concern for body image		1.00	0.36**	0.16*	0.14*	-0.20**	-0.13
Eating disturbance			1.00	0.46**	0.44**	-0.09	-0.15*
Current figure				1.00	0.90**	0.24**	0.20**
Considered figure					1.00	0.21**	0.18**
Ideal figure						1.00	0.69**
Attractive figure							1.00

\*p<0.05, \*\*p<0.01

었다.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에 있어서는 여학생군과 체중조절경험군에서 남학생군과 체중조절 비경험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BMI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체형에 대한 관심은 군간에 유의성이 없었고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는 군간에 유의성은 인정되었으나 비만군에서는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체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체위가 변화된 정도는 매우 낮았으나 변화가 많은 군일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는 높았다.

체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상적인 체형과 매력적인 체형으로는 남녀 모두 현 체형보다 마른형을 택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그 차이는 유의적으로 컸다. 이상적인 체형과 매력적인 체형으로 마른형을 선호할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 관련 증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식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체중조절을 포함한 체형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와 관련된 행동등은 현재의 체형보다는 이상적이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체형이 어떠한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들이 체형의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밀양산업대학교 기성희 학술연구 지원비로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강영림 · 백희영(1988) : 서울 시내 사립국민학교 아동의 비만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1 : 283  
 고경숙 · 성낙웅(1974) :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아동의 비

만중에 대한 고찰. *공중보건잡지* 11 : 163  
 문형남 · 홍수종 · 서성재(1992) : 서울지역의 학동기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증 이환율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5(5) : 413  
 박갑선 · 최영선(1990) : 대구시내 아파트 거주 주부들의 비만 실태와 비만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3(3) : 170  
 이인열 · 이일하(1986) : 서울시내 사춘기 여학생의 비만실태와 식이섭취양상 및 일반환경 요인과 비만과의 관계. *한국영양학회지* 19(1) : 41  
 이종호(1990) : 비만증의 치료. *한국영양학회지* 23(5) : 347  
 이주연 · 이일하(1986) : 서울 지역 10세 아동의 비만 이환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9 : 409  
 최인선 · 황혜신 · 오승호(1995) : 정규적 운동을 하는 성인 남성의 비만도 및 지방급원 식품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4(4) : 550  
 하명주(1985) : 대구시 비만아동의 비만요인에 관련된 사회조사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1(2) : 29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2) :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공업진흥청* : 64-67  
 Bell C, Kirkpatrick SW, Rinn R(1986) : Body image of anorexic, obese, and normal females. *J Clin Psychol* 42 : 431-439  
 Brone R, Fisher C(1988) : Determinants of adolescent obesity : A comparison with anorexia nervosa. *Adolescence* 23 : 155-169  
 Brown JE(1995) : *Nutrition Now*. West Publishing : 11-3-11-5  
 Desmond S, Price J, Hallinan C, Smith D.(1989) : Black and whit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weight. *J Sch Health* 59 : 353-358  
 Dowson D.(1989) : Ethnic differences in female overweight : data from 1985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m J Public Health* 59 : 353-358  
 Fallon A, Rozin P(1985) :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esirable body shape. *J Abnorm Psychol* 94 : 102-105  
 Feldman W, Feldman E, Goodman JT(1988) : Culture versus biology :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inness and fatness. *Pediatrics* 81 : 190-194



- Furnham A, Alibhai N(1983) :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Female Body Shapes. *Psychological Medicine* 13 : 829
- Hamilton EMN, Whitney EN, Sizer FS(1991) : Nutrition-Concepts and controversies- 5th Ed, West publishing company : 285-288
- Huenemann RL, Shapiro LR, Hampton MC, Mitchell BW (1986) : A longitudinal study of gross body composition and body conform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food and activity in a teen-age population. *Am J Clin Nutr* 18 : 325
- Kemper KA, Sargent RG, Drane JW, Valois RF, Hussey JR (1994) : Black and White Females' Perceptions of Ideal Body Size and Social Norms. *Obesity Research* 2(2) : 117
- Klesges RC(1983) : An analysis of body image distortions in a nonpatient populations. *International J of Eating Disorders* 2 : 35-41
- Moses N, Mansour-Max B, Fima L(1989) :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83(3) : 393
- Rozin P(1988) : Body Image, Attitudes to Weight, and Misperceptions of Figure Preferences of the Cposite Sex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Two Generations. *J of Abnormal Psychology* 97(3) : 342
- Smolin LA, Grosvenor MB(1994) : Nutrition-Science and Application-, Saunders College Publishing : 212
- Storz NS, Greene WH(1983) : Body weight, body image, and perception of fad diets in adolescent girls. *J of Nutrition Education* 15(1) : 15-18
- Stunkard AJ, Sorensen T, Schulsinger F(1981) : Use of the Danish adoption resister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thinness. *Genetics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Raven Press, New York : 115-120
- Thompson JK, Psaltis K(1988) : Multiple Aspects and Correlates of Body Figure Rating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Fallon and Rozin(1985). *International J of Eating Disorders* 7(6) : 813
- Thompson JK, Thompson CM(1986) : Body size distortion and self-esteem in asymptomatic, normal weight males and females. *International J of Eating Disorders* 5 : 1061-1068
- Wardlaw GM, Insel PM, Seyler MF(1994) : Contemporary Nutrition -Issues and Insights- 2nd Ed, Mosby : 323
- Whitney EN, Rolfes SR(1993) : Understanding Nutrition 6th Ed. West publishing company : 253-256
- Wilson DB, Sargent R, Dias J(1994) : Racial differences in selection of ideal body size by female adolescents. *Obes Res* 2 : 38-43